九州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Kyushu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姜南周の詩的世界

松原，孝俊
九州大学言語文化部

https://doi.org/10.15017/5387

出版情報：言語文化論究. 6, pp.159-168, 1995-03-10. 九州大学言語文化部
バージョン：
権利関係：

姜南周의 詩的世界

-- 国土分断의 苦痛과 時間意識을 중심으로 --

松原孝俊

[1] 姜南周：１９３７年生. 韓國 慶尚南道 河東出身. 詩人.

시집 「海底의 숲」三省出版社（１９７２年）
「떠도는 者의 日記」亜成出版社（１９８０年）
「새와 머리카락 」詩路（１９８３年）
「가고싶은 수렵시대 」地平（１９８７年）
「미명의 저쪽에서 반짝이는 등불 」世界文学（１９９０年）
「장자의 바가지 」빛남 （１９９２年）

[2] 한국현대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결코 간단히 정리될 정도의 양이나 질이 아니다 . 반세기 이상의 역사와 수많은 시인의 창작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현대시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외재적인 논의 일변도였으며, 그런만큼 개별 작품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비교적 일천한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본고의 목적은 의미단위로서의 완결성을 전제로 한 시인의 시 몇가지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현대시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결국 이 본고는 한국현대시 이해의 座標軸에 관하여 기존 논의와 視点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地平을 姜南周詩人의 詩的世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하의 논의를 위해서 필자는 姜南周詩人의 몇편의 작품을 뽑아서 그 작품이 필자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요소를 분석해석해 가면서 , 한국현대시의 現在의 到達点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반면에 이와 같은 반론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더 많은 시인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만, 필자 자신이 韓国現代詩의 綜合的인 鳥瞰図를 作成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 한국 현대시의 중심지에서 活動하고 있는 姜南周詩人의 到達点과 位置를 探査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출발점으로 언제인가 전면적인 詩人図를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 본인이 의도이다.

[3] 姜南周의 文學世界를 대표하는 詩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지리산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다. １９５０年６月２５日에 勃発한 韓國動亂을 体験한 수많은 韓半島 사람들이 아직도 겪고 있는 国土分断의 苦痛, 戦争으로 因한 죄없는 병사들의 무참한 죽음에 대한 共感・哀悼・憐憫. 戦死者들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追慕의 情등은 戦爭이 끝나고 ４５년이 된 현재도 姜南周詩人의 정신속에서 脈々히 살아 흐르고 있는 것이 事実이다.

다만 , 이 시의 이해에세 매우 중요한 사실은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선혈을 보면서」를 출발점으로 해서 비롯되는 극히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감정의 水位…憐憫・凄惨・苦痛을 억누르면서 감정의 영역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시인의 내면이 옮겨져 노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転換装置는 여섯째 행째의 「지금은」에서부터 있다.

「섬진강 강가에 앉아 지리산을 본다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선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시온은 아무데도 없었다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흘리던 눈물이
지금은
지리산 산록의 강변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피흘리던 사람은
모두들 어디론가 가고 없다 . (이하 省略) 」
(「지리산을 보며 흘리는 눈물」)

전쟁터에서의 가장 비참한 결과인 죽음을 직시한 시인은 그 죽은자들에게 長文의 弔辭를 献呈하더라도 , 또는 憤怒・怨恨・哀悼등의 文学的感傷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 죽지 않아도 될 인간이 본인의 意思와 관계 없이 죽고 말았다는 명확한 사실을 바꿀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水面 아래로 가라앉히고 「피흘리던 사람은 모두들 어디론가 가고 없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姜南周詩人은 무엇 때문에 끓어 오르는 마음 속의 진실을 억누르고 있는가? 그 해답은 , 그의 시간관에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게 시계로써 헤아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기초로 해서 서술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일상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外的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에서 結晶되어 엮어져 있는 것은 幽遠한 宇宙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無限과 일치하고 있는 거대한 時間感覚에 있다.

시의 첫머리에서 「섬진강 가에 앉아 지리산을 본다」로써 외적時間의 테두리를 設定해 두면서 둘째줄부터는 모르는 사이에 超時間的・超空間的인 無限의 世界로 독자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超時間的인 無限의 世界 속에서 시인은 시간과 関連된 인간의 運命과 虚無를 생각하고 있다.

어느 작품을 보더라도 시간을 軸으로 하는 構成原理가 의식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시의 基層에서부터 모르는 사이에 시간의 軸이 세워져 , 독자의 배후에서 시간이 보이지 않는 触手를 뻗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 의 시 「사닥다리를 내려 오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은유적이다. 왜냐하면 시인은 「無限의時間軸」이라는 「사닥다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 시간의 軸을 오느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은 姜南周의 詩의 世界의 本質 構造이다. 그러니까 그의 시는 時間의 主題에 의한 変奏曲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人生을 観照하는 그의 詩的 姿勢이며 人生의 本質을 時間을 통해서 考察해 보고자 하는 그의 努力의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그의 意識은 戰爭의 悲劇性을 時間과 関連하여 指摘함으로써 反戰思想을 具体的으로 詩化하고 있다. 国家라는 巨大한 집단속에서 戰爭에 의해서 犧牲되고 磨滅되어가는 個人과 個人의 悲劇、哀切한 運命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으로 同情하면서 密度 높게 노래하고 있어 그가 追求하는 개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感知할 수 있다.

姜南周詩人의 以上과 같은 詩的 内容의 特性 외에 構造的인 面에서의 特性은 獨特한 語調（ｔｏｎｅ）에서 발견된다. 周知의 사실이지만 語調란 話者의 発声의 態度이자 読者가 詩를 向해 취하는 태도이다. 이 態度가 談話形式을 통한 一人称的 心情述懷라는 것이다. 이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特徵있는 언어와 함께 読者에게 상당한 説得力과 共感帯를 形成하게 되는 要因으로 把握되고 있다. 修辞的인 面에 대해서도 한마디 곁들인다면 感情的이면서 純粹한 韓國語의 使用과 함께 폭넓게 隱喩를 駆使하고 있어 読者의 想像力의 場을 넓혀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陳述의 事実性 与否에 대한 糾明을 위하여 이제부터 行論을 더 해가면서 具体的으로 그의 詩를 検証해 보기로 하겠다.

［4］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姜南周詩人은 그의 詩를 통해서 時間을 絶対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時間을 連続的 혹은 線的인 概念으로 把握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의 시간은 過去와 現在와 未来가 直線的 理解의 中心軸이 되면서 그 価値는 時差에 따라 相対的인 것으로 된다. 그래서 独立的 또는 그 独立된 時間의 単位 속에 価値는 存在한다. 따라서 過去나 現在, 未来와 같은 順次性은 별다른 意味가 없으며, 時間의 単位 속에서의 個人의 運命이 重要한 意味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姜南周詩人의 詩 속에는 이와 같은 시간의 絶対性이 克明하게 나타나고 있다.

韓國動乱의 悲劇的 状況과도 관계가 깊은 다음 詩를 읽어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다. 한 詩人의 生涯가 하나의 絶対的인 時間의 単位가 되어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보,
부끄러움을 거두고
다시 시집을 가구려.
지리산 산록에서
나는 죽어서 화평을 찾았고
누구 하나 시신에 염습이 없었기에
더욱 자유로운 잠을 이렇게 자고 있소.
켜켜이 내려앉는 잠을 비비며
여보,
이제 나를 기다림은
헛수고인 걸로 （이하 省略）」
（「아내의 재혼을 위하여」）

智異山 빨찌산戰鬪에서 男便이 戦死한 事実을 모르고 그의 帰還을 기다리며 늙어 버린 아내에게 男便의 霊魂이 말하고 있는 談話体 形式의 詩이다. 이 詩에서는 한 女人의 生涯가 하나의 時間 単位로 되어 있다.

이 時間은 이 여인에게는 全生涯이며 절대적인 하나의 단위이다. 幸福도 不幸도 한 単位속에 있는 이 時間의 限界를 의식하면서 話者 (男便) 는 결혼한 뒤 生離別해서 男便을 기다리며 늙어가고 있는 아내를 위하여 再婚을 勧誘하고 있다. 이 勧誘는 悲壮美까지 곁들여져 있다고 하겠다.

삶의 究極이 무엇이며, 개인의 幸福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専横의 極点인 전쟁은 全体를 構成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寄与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反省的 質問을 하고 있는 詩다.

時間을 하나의 単位로 意識하고 있는 그의 詩는 많다. 「가고 싶은 수렵시대 」와 같은 詩는 狩猟時代라는 人類歴史 속의 時間単位를 하나로 묶어 그 속에서 살던 인간의 삶을 不幸을 몰랐던 삶으로 해석하고 있다. 「長丞의 오후 」라는 詩에서도

「살아 있는 자의 행복이
죽은자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

인간은 오수를 즐긴다고
넋을 빼놓고 있는 시간에
나무 한 토막은 서서
지렇게 경건함을 다스리고 있나니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간
잠시 잠깐은
그대의 것이고 나의 것이기도 하고 」

라고 노래하면서 生者의 시간과 死者의 시간을 絶対的인 시간으로 보면서 이 두 시간을 対立시켜 時間 속의 두 主人公의 幸福을 각각 다른 次元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와 같은 時間観은 그의 運命観과도 接脈되고 있다. 그의 運命観은 多分히 悲觀的이며 虚無的이다. 時間의 単位 밖으로 밀려났을 때는 価値体系가 喪失되는 하나의 終焉이 있으며 그것은 곧 허무인 것이다. 결국 그에게 있어서는 삶이란 삶의 時間的 테두리 밖을 향하는 虚無와 等価의 内容이 되고 있다.

「꿈을 꾼다
꾸는 족족 잊어버리면서
꿈을 꾼다
깨고 나면 그렇게 허망한 것을

때로는 너와 만나는 꿈을
또 때로는 너와 헤어지는 꿈을
간밤에는
이 세상밖으로 걸어나가는 꿈을 꾸다가
기차를 타고
나의 유년 시절로 여행하는
그런 꿈도 꾸었다

갈피는 없어도
삶의 순수한 건더기

출세를 하면 다 무얼하랴
오오
꿈과 더불어 사는
살아 있는 날의
다정함과 허망함.

꿈을 꾼다 .
꾸는 족족 잊어버려도
꿈을 꾸면서 산다 」
(「꿈에 대하여」)

꿈은 대체적으로 希望이나 理想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詩에서는 그와 같은 꿈을 꾸는대로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虛妄感을 나타내고 있다. 出世마저도 헛된 꿈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 이와 같은 꿈의 喪失은 虛無主義者的 世界觀을 가진자의 発想이 아닐 수 없다.

虛無主義者적 発想의 밑바닥에는 国土의 分断과 戦争으로 因한 離別과 死亡 등, 同時代人의 아픈 体験이 融解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分断에 따른 民族的 苦痛은 그의 詩 여러 곳에서 발견되며, 戦争의 傷処 역시 智異山을 舞台로 한 그의 一連의 詩篇들 속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의 智異山은 韓半島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인 山이나 地名만을 指称하는 것은 아니다. 国土가 分断된 그의 祖国과 그 分断이 빚어낸 슬픔의 象徵이 곧 智異山이다. 그 슬픔의 象徵을 무대로 해서 詩를 썼을 때 그의 詩는 虛無感을 담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韓半島 남쪽까지 命令에 의해서 進擊해 왔다가 戦争에서 敗하고 北으로 가기 위한 退路가 막혀 智異山으로 逃亡간 젊은이들. 그들은 自身의 希望이나 理想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모두 빨치산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런 빨치산을 討伐하다가 남쪽의 젊은이도 智異山 山麓에서 수없이 목숨을 잃었다. 民族解放이나 世界平和라는 간판을 내어걸고 벌어진 同族殺戮의 現場에 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토분단의 情況을 詩化한 一連의 그의 詩는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虛妄하다. 그리고 쓰라린 記憶의 単位가 그의 精神 속에 絶対的인 時間의 単位로 남아서 그의 時間觀을 形成하게 된 것이다.

[5] 詩는 언어의 예술이다.

社会性에 의해서 약속관계로 제한되고 있는 언어, 역사 속에서 常套的인 의미 밖에 갖지 못하는 언어의 深刻性은 그의 詩 속에서도 指摘되고 있다. 言語의 이상적 사용은 진실의 表象에 있으나, 現実은 그렇지 못함에 危機가 있음을 지적한 그의 詩 한편이 있다.

「말의 진실, 말의 거짓이 앉아서 밤을 새운다.
거짓이 다하면 목베임이 있고

진실이 끝나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가장 명백한 끝장은 말의 고갈과 함께 오나니
새로운 상상력을 조립해야만 하는 그대의 창조
천일 하고도 하루에 또 하루씩 보태면
샤리아 왕의 눈썹에 검은 눈이 내릴 것이니,
말이여,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말이여 (이하 省略)」
(「다시 세하라자드에게」)

이 詩는 샤하라왕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목숨을 이어가는 「千日夜話」의 女主人公 세하라자드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쓴 것이다.
세하라자드의 이야기는 真実일 수 없다. 그러나 그 真実일 수 없는 이야기가 枯渴될 때 이야기꺼리가 없는 사하라자데의 목숨은 이침 이를 속에 사라진다. 바로 이 사실이 언어의 虛構와 언어의 危機를 端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에 의해서 存在를 確認하지만 언어에 의해서 그 존재는 破壞되고 있는 아이로니 (irony)를 본다. 이 것이 언어의 운명이다.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 詩人의 일이다. 그 것은 곧 지식에 의한 偏見이 언어의 造作에 다름 아니며, 거짓말일지라도 언어가 枯渴될 때 한 사람의 목숨이 끝난다는 언어의 悲劇性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意識은 「다시 세하라자드에게」와 같은 詩를 낳게 하고 있는 것이다.
姜南周詩人은 언어의 熾烈性을 詩를 통해서 追求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의 의미적 한계를 깨뜨리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詩의 예술성을 高揚하고자 하는 시인이다. 언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빠롤의 세계를 넓히며, 과연 언어의 본질, 의미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探求하고 있는 시인이다.

「죽음보다 슬픈 것은 무덤이다」

이 말은 「草墳의 바람」이라는 詩의 머리에 나오는 말이다. 그 詩에서는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매장이다」

라고도 노래한다.
죽음이라는 단어의 表皮的 意味가 아니라 죽음을 立証하는 記号에 의해서 비로소 죽음이란 단어가 실현을 한다면 시인은 당연히 그 기호를 찾아야 한다. 그 것이 위의 引用에서는 「墓」로 나타나며 「埋葬」으로 나타나고 있다. 墓나 埋葬이 아니면 죽음의 슬픔이나 죽음의 두려움은 한결 단순화해지며, 드디어는 죽음 그 자체는 단어로서의 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스트레오타입 (Stereo type)을 거부하는 일은 당연히 시인의 일이다. 姜南周詩人은 이 일을 実践함으로써 언어의 예술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詩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는 詩의 材料이자 同時에 材料로서의 事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日常語, 主張이나 説得에 사용되고 있는 散文的 언어일지라도 일단 詩語로 採択되면 詩를 構成하는 要素가 된다. 이는 詩의 재료이다. 이 재료는 단순한 전달기능만 아니라 存在의 영역을 拡張시켜 주는 事物의 役割을 맡게 된다.

詩가 언어예술이라고 할 때 언어예술로서의 局面이 당연히 詩에 나타나야 한다. 이는 既存 개념의 拒否과 拡大, 生活語의 選択과 詩的 조립 , 기존 文法이나 統辞論的 규제를 벗어날 때 가능해진다. 이는 詩人의 언어의식에 의해 출발하는 것이다. 언어가 枯渴되었을 때의 그 切迫感이 빚어내는 언어가 그런 것이라면 詩「다시 세하라자드에게 」의 언어의식은 이미 変容된 빠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墓나 埋葬이 単純한 物質名詞나 抽象名詞가 아니라 抽象을 具象化하는데 쓰이고 있는 名詞라면 이는 분명히 常套的인 意味範疇를 벗어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6] 이 詩人의 詩는 反戦的인 것이나 人生論적인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결코 자신의 感情에 沒入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詩의 全篇에 흐르고 있는 情緒는 庶民的이며 平民的 哀感이다. 놀라울 정도로 感情을 節制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抒情詩가 빠지기 쉬운 센티맨탈리즘은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이 詩人의 特徵이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가거라

청대 끝에 이는 바람의 흐느낌
그 본적이 궁금하면 오너라
와서 머리를 맞대고 울자

사랑은 언제나 사랑 때문에 상처난다

시간이 약이라지만
애증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성터의 이끼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창연할 뿐이다 (이하 省略) 」
(「환자의 느낌 」)

공생의 논리와 애정의 논리가 複合的으로 들어 있는 시이다. 동시에 苦痛을 나누고 , 남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살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詩는 결코 貴族趣味가 들어 있지 않다. 欧羅巴 敍事詩가 보여주고 있는 荘重美나 超人的인 「그 무엇 」도 담고 있지 않다 . 平凡한 市民으로 살면서 사랑하고 헤어지며, 그런 人間事를 함께 아파하는 내용를 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平凡 속에 우리들 人生의 깊이가 있으며, 自己感情에 沒入해서 興奮하지 않음으로써 「나」와 「우리 」의 삶을 바로 보겠다는 詩人의 詩作態度가 보이는 것이다.
詩란 原則的으로 무엇인가를 강하게 主張하거나 他人를 説得하기 위한 目的으로 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이 弁論文이나 散文으로 된 教科書의 文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따라서 詩는 政府의 指示文일 수도 없으며, 宣戦布告文의 役割을 担当할 수도 없다. 아직 개인적 情緒를 仮装없이 表現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叙情詩는 개인적이며, 庶民的이다. 그리고 서민의 哀歡과 함께 平凡한 내일의 꿈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 哀歡은 남이 알아주거나 同調하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 없다. 오직 庶民的 삶의 自己表現일 뿐이다. 그런 삶은 어쩌면 들판의 이름 없는 풀의 삶과도 같을지 모른다.

「비가 오면 모두가 젖는다
들풀은 그 속에서
온 몸을 적시며 발뒤꿈치를 든다
누가 알아주랴
그의 이름을
그래도 그는
파란 생명의 등불의 켠다
이름은 없어도 신선한 등불을 」
(「무명의 들풀로 」)

비가 오는 들판의 풀은 무엇을 뜻하는가. 거대한 힘을 피하지 못하는 庶民들의 삶을 뜻한다. 그들은 거센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쓰러진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고 바람이 멎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일어선다. 이 것이 바로 平凡하면서도 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들풀과 같은 庶民의 모습이다. 庶民에게는 華麗한 이름도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庶民을 알뜰히 생각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비가 멎으면 들풀이 푸르고 신선하게 자라는 것처럼 庶民들도 거대한 세력의 짓누르는 힘이 지나가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는다. 들풀은 庶民 全体를 대신하고 있는 提喩라 하겠다.

姜南周詩人의 詩 가운데는 苛酷하지는 않으나 매서운 비판적인 詩도 있다. 이런 경우의 詩에서도 역시 庶民精神은 分明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세를 하면 다 무얼하랴 」라고 노래한 「꿈에 대하여」라는 詩에서 볼 수 있었던 생각과 일치한다. 그 일치란 詩人의 庶民精神이다. 出世를 했다고 眼下無人으로 행동하는 일부 階層에 대한 警告이면서 庶民의 不変性이 隠然中에 나타나고 있는 시이다. 다음의 詩가 바로 그런 例에 해당된다.

「올라가기보다 어려운 것은 내려오기다
높이 올라가 있을 때는
세상은 아래로 보여도 불안하다.
내려올 때에는
불안하기보다는 다리가 떨린다.
올라가기보다 어려운 것은 내려오기다」
(「사닥다리를 내려오면서 」)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일을 人間事에 비교하고 있다. 地位가 높아졌다고 세상을 아래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닥다리를 내려오기도 어렵고 내려와서 処身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地位가 높았을 때나 낮았을 때나 庶民精神을 堅持하는 것이 삶의 道理라고 믿고 있는 시인의 人間觀에서 비롯된 詩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姜南周詩人의 詩는 単純한 情緒의 漂白이라기보다는 의미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發言내용을 伝達하기 위하여 高揚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아무런 強要도, 強調도 없다는 점에서 메세지를 目的으로 하는 散文이나 아지 프로 文学과는 区別되고 있다.

［7］

한편으로는 전쟁이라는 악의에 찬 세계의 非情함과 苛酷함을,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진실과 허위를 두고 姜南周의 詩的空間의 토대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시간의 軸을 設定함으로써 현실세계와 초시간적 무한한 세계를 그 전체에 걸쳐서 바라보며 , 인간이란 기묘한 존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 그의 시이다 . 그와 같은 인간인식의 위에서 그의 시는 보편성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있다고 하겠다.

［参考文献］

金容稷『근대문학연구』志学社、１９８６年
－－－「現代詩의 言語的様相」『国語国文学』９６号、１９８６年
문덕수『韓国모더니즘 시연구 』시문학사社、１９８１年
白鐵・李秉岐『国文学全史』新丘文化社、１９７９年
宋敏鎬「韓国詩歌文学史」『韓国文化史体系』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所、１９６７年
鄭漢摸『韓国現代詩史』一志社、１９８０年

要約

一方には戦争という悪意を充満させた人間の非情さと苛酷さを、もう一方には人間に対する共感・憐憫を、さらにもう一方には人間の真実と虚偽とを置いて、姜南周の詩的空間の土台は構築されている。そしてその土台の上に時間の軸を設定する。そのために彼の詩集は時間の主題による変奏曲集であるといって良い。

現実世界と超時間的な無限の世界とをその全体に渡って望見し、人間という奇妙な存在の意味を考察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人間認識の上に立つことで、彼の詩は普遍性の獲得に成功している。